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독서: 미정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강선우 마르가리따	성탄미사봉헌금: \$92
이번주 미사 해설:	지난주 봉헌금: \$146
다음주 미사 해설:	2 차 헌금: \$132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달력판매: \$ 5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합계: \$375
친교실 정리: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예비자 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 8 시, 사제관, 김 아셀라 수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복음 계속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주님 공현 대축일]

2010 년 1 월 2 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60,1-6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제 2 독서> 에페소서 3,2.3 ~.5-6 < 지금은 다른 민족들도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 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 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 마태오 2,1-12

복 음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 옆면 계속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의 성가] 입당: 487 봉헌: 111 성체: 100 파견: 485

† <생명의 말씀>

유다인의 메시아에서 세상의 그리스도로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Sollemnitas Epiphaniae Domini)에 전 세계의 가톨릭교회는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사건을 기념합니다. 이 경배를 통해 아기 예수가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음을 교회공동체는 기억하기에 우리는 그 사건을 공현(Epiphania)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전례력에 의하면 이 대축일은 1월 2일부터 8일 사이의 주일에 거행되어야 하는데, 보다 전통적인 지역교회에서는 그 날짜를 1월 6일로 고정하여 의무대축일로 지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동방박사의 방문은 마태오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목자들인 반면 마태오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루카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가난’이라는 신학적 주제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 즉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지는 장면부터 목자들의 방문, 그리고 그 후로 전개되는 루카복음서만의 독특한 내용들은 ‘가난’에 대해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오복음은 예수의 신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메시아, 즉 ‘왕’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복음서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체의 징표를 읽은 이웃나라의 박사들이 ‘유다인들의 임금’을 찾아 헤로데에게 왔다는 보도를 통해 마태오는 복음의 서두에서부터 예수가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은 본래 그리스어로 쓰여진 문헌입니다. 그 원문에서 ‘마고스(MAGOS)’라는 어휘가 사용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단어가 마치 눈속임을 하는 마술(magic)과 같은 다소 평화된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단어는 천체를 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고대세계의 가장 지혜로운 석학들을 이룰 때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점성가’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말 성경의 ‘박사’라는 번역 역시 적절한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오복음은 그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 이름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음은 그들이 동방에서 왔으며, 그들이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었다고 전할 뿐입니다. 복음이 언급하는 동방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또는 더 나아가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이 두 지역은 모두 점성학이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5~6세기경부터 몇몇 지역교회에서 이들을 동방에서 온 삼왕으로 보면서 그 세 임금의 이름을 카스퍼(Casper), 멜키오르(Melchior), 발타사르(Balthasar)라고 부른 전통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각기 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임금의 권위를, 유향은 사제적 지위를, 몰약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각각 함유하고 있다고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마태오복음은 자신의 복음 전개를 통해 예수가 단지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제한적 지위에 머무르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로 시작한 마태오복음은 결국 예수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의 경배를 받아야 할 메시아임으로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 다음 주 (1/9) 미사 후에 1월 정기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사목위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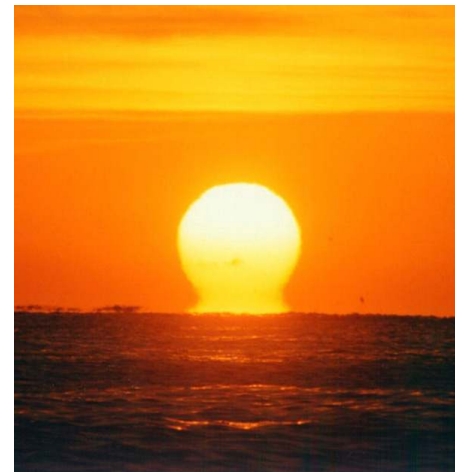
† <오늘의 묵상 >

복음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다만 그들은 별의 인도로 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별’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입니다. 사건이든 만남이든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이 ‘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느꼈다면 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만남에는 분명 주님의 힘이 관여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별의 기운’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동방 박사들처럼 용감해야 합니다. 물러나지 말고 이고심을 따라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처럼 예물도 바쳐야 합니다. 살면서 만나는 ‘인연의 아픔’입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예물로 만들어 바쳐야 합니다.

바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때 ‘봉헌’이 됩니다. 아픔이 ‘진할수록’ 황금이 되고, 유향이 되고, 몰약이 됩니다. 올해에도 주님께서서는 ‘술한’ 별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 별을 붙잡고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복음의 동방 박사가 됩니다



교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